

'선불교 대중화' 3국선사 간담회

무차선 법회가 끝난 후 서울, 진제, 정해, 증현 등 3국의 선사들은 축서사 주지 무어 스님의 사회로 한국 중국 일본 조사선의 전통과 현재를 점검하고 선불교를 대중화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간담회를 가졌다.

◆무어 스님=오늘 삼국의 큰스님들이 인류의 행복을 위해 무차법회에 참석해 주셔서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입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선불교는 인류 정신문화의 최고봉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가적인 차원에서 보호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선사님들께서 조사선이 세계인들에게 보편화, 대중화될 수 있도록 방안도 모색하여 주십시오.

생활선이 가능합니다. 오늘 무차선회에서 3국의 선사들이 한 자리에 모여 모든 인류가 생활선을 닦는 계기를 열어주셨습니다. 앞으로 인류가 틀이 아닌 도리로서 공존 공생하면 인류화합의 불국토가 될 것입니다.

◆정해 스님=임제종의 무위진인은 언제 어느 곳든 없는 곳이 없기에, 생활 가운데서 찾아야 합니다. 바로 앞에서 즉각(當下) 깨달아 무위진인을 장악할 수 있다면 성불의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오늘 모든 분들의 얼굴에서 한국 민족의 솟아 오르는 정기와 차분한 심성이 느껴져 생활선이 이런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천년전 선어록에서만 보던 법거랑을 오늘 법회에서 직접 보니, '이것이 바로 거랑종풍이구나'

선불교는 인류 정신문화의 최고봉

참사람만이 인간구제·불법완성

3국선사들 생활선 닦는 계기 열어

◆서울 스님=한국의 조사선은 고려말 태고보우 스님과 나옹 화상에 의해 크게 진척되었습니다. 조선시대에는 유교의 탄압을 받아 산중에서 어렵게 법맥을 이어왔고 조선말 서산대사에 의해 다시 중흥되었으며, 현대에 다시 크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인류는 욕망으로 타락하고 서로 투쟁하므로, 이대로 가면 인류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오직 조사선의 참사람만이 인류를 구제하고 불법을 완성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실감했습니다. 조사선을 보편화 대중화하기 위해서는 신앙심과 인과 관념, 양심, 도덕성이 전제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증현 스님=엄격한 스승 아래 참선을 닦아 좌선 삼매에 든다면 조사선의 전통을 확립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후전 해운 정사에 도착해 대불전과 관음전 등 도량 곳곳에서 참선종인 스님과 재가불자들을 보고 큰 감명을 받았습니다. 일본 조동종에서는 주지 진산식이 있을 때만 법거랑을 합니다만, 조사선의 대중화를 위해 자비심을 갖고 차를 나누는 일상성(日常性)이 필요한 때입니다.

◆진제 스님=참나를 바로 알면 이 몸 가운데 모든 진리가 갖춰져 있음을 알게 됩니다. 다함 없는 법문과 덕성을 갖춘 이 몸으로



◇3국의 네 선사는 조사선이 인류문명을 구제할 최고의 정신문화라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시대에 맞는 '생활선'을 구현해야 한다고 말했다. 가운데는 간담회 사회를 맡은 축서사 주지 무어 스님.

※ 알림=기사첨착 '스님이야기' '불교공부' '그' 은 쉽니다

"참사람운동 퍼지 않으면 인류문명 구원하기 어려워"

서울스님 법어



서울스님(92·백양사 방장)은 동화사 백양사 봉암사 조실을 거쳐 1974-79년 조계종 제5대 종정을 역임했다.

건강 약화로 참석이 불투명했던 서울 스님은 "자칫 생명이 위태로울 수 있다"는 의사의 만류에도 92세의 노구를 이끌고 참석해 선지식의 할 바가 무엇인지 여실히 보여주었다. 스님은 갑자기 내려간 기운과 우연관계로 야외에 마련된 법단에 오르지 못하고 상선원에서 신도들에게 손을 흔들며 화답한 후 혼신의 힘을 다해 "참사람운동이 아니면 인류문명을 구원하기 어렵다"며 다음과 같은 법어를 내렸다.

동양의 조사선(禪)에서는 근원적으로

문제를 해결하여 생사도 없고 좌악도 없는, 활발발 자유자재한 본래면목(本來面目)을 찾는 사람을 참사람이라고 했습니다. 참사람은 능동적 주체로서 어디에도 걸림 없이 자유자재합니다. 이 참사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절대 영원의 생명체입니다. 참사람은 무한한 능력이 있고 무한한 지혜가 있고 무한한 복덕을 지닌 참다운 생명입니다.

이 참사람은 자유자재하고 자비심으로 충만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참사람주의로 인류가 세계평화를 창조할 때 과학문명의 노예로 전락한 인류를 해방시킬 수 있습니다. 참사람은 대자연도 자기의 생명처럼 아끼고 잘 보호하여 사랑하며, 인간과 인간끼리도 서로 자비심으로 화합하고 협조해서 투쟁이 아닌, 평화적으로 세계 역사를 창조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본래 세계역사는 인간주의가 아니라 참사람주의이므로 멸망하게 된 인류를 구제하여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새로운 세계역사를 창조합니다.

천하가 크게 어지럽고 인류는 위태로우니(天下大亂 人類危).

참사람의 정도로 중생을 구제할지니라(眞人正道 濟衆生).

몸은 뜬구름 같고 마음은 청풍이라(身似浮雲 心清風).

세계평화는 만세토록 영원할지이다(世界平和 萬歲永).

할렘!



◇20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열린 '한·중·일 국제무차선대회'에서 선불교 역사상 처음으로 3국 여명동 사부대중 1만2천여명이 참석했다. 수좌대표가 일본의 증현스님에게 법을 청하는 삼배를 올

眞人の正道로 중

사상 처음으로 한·중·일 동북아 3국의 선사들이 20일 부산 해운정사에서 열린 한·중·일 국제 무차선 대회에서 선법을 펼쳤다. '21세기, 선(禪)으로 참나를 찾자'를 주제로 열린 이번 무차선법회는 고불종림 백양사에서 1998년과 2000년 두 차례에 걸쳐 열렸던 참사람 무차선 법회를 계승하고, 조사선(禪)의 선양으로 인류 정신문화의 새 지평을 열겠다는 취지로 열렸다.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1만

한·중·일 국제무차

"하늘과 땅은 나와 한뿌리 만물은 나와 한몸이로다"

진제스님 법어·법거랑

서울 스님의 법어에 이어 등단한 진제 스님은 상망(上望)하여 주장자로 법상을 한번 치고 이르기를,

하늘과 땅은 나와 더불어 한 뿌리요(天地與我同根), 만물은 나와 더불어 한 몸이로다(萬物與我同體).

설사 이렇게 하여도 한 판문이 가리어 있습니다. 주장자를 또 한번 치고 선(禪)을 선이라 하면, 통 위에 통을 더함(屎上加屎)이요, 선을 선이라 아니하여도 30방(卍)을 맞음이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옳으나?

쇠를 녹이는 큰 솥에 '정미로운 금' 精金이요, 맑은 못에 밝은 달이로다.

진제스님의 법문이 끝나갈 무렵, 법회장 앞에 있던 미국인 금바 스님이 법문중인 스님의 탁자를 손바닥으로 내려치고 마이크를 치우려하자, 진제스님은 "억! 이 여우같은 놈!"이라며 웃음으로 받아 넘겼다. 돌발상황에 법회장은 일순 긴장감이 감돌았고 그 긴장과 미처 예견할 수 없는 상황들이 무차대회의 '본래 면목'을 보여주며 내내 대중들의 이목을 끌었다.

이윽고 연단위 내린석에 앉아 있던 보림선원 주지 목산스님이 막 질문을 마친 진제스님 앞으로 나가 질문을 던지면서 본격적

인 선문답이 시작됐다.

"오늘 이 대법회가 무슨 법회요?"

"만 천하에 가득합니다. 소송의 허물이."

"입을 열 적에 그릇했다. 내려와!"

"차나 한잔 자세요."

"내려와!"

"억!"

"내려와!"

"억!"

"이 법회는 무차법회가 아니다."

"한 가지 더 묻겠다"는 목산 스님에게 진제스님은 "한 분이 한 가지씩만 물어달라"고 청해 다음 질문이 이어졌다.

삼배를 마친 또 한 스님은 "급하게 답하지 말고 생각을 해서 답해주시고도 좋습니

다."라며 질문을 시작했다.

"임제스님의 사빈주(四賓主: 임제종에서 화인을 교화할 때, 학인(賓)과 스승(主)의 관계를 네 가지로 나눈 것에 대해 묻겠습니다. 어떠한 것이 임제 사빈주 가운데 주

중주(主中主: 스승이 선사로서 갖출 역량을 제대로 구비한 경우의 도리입니까?)



진제 스님(71·동화사 조실)은 경허-혜월-운봉-항곡선사로 이어지는 한국 근대 선불교의 대표적 법맥을 계승하고 있다.

"구중궁궐(九重宮闈)에 처하니 일천 부처님도 보기가 어려움이로다."

이어서 남자는 "스님이 한 대답을 대견하다 들었으니 나에게 같은 질문을 해보시오. 스님의 답을 인정할 수 없소"라고 말했다. 그러자 진제스님은 "들어가"라는 말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 등 세계 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보인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은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한다. 배가 연마의 맛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한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로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탈색현상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비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약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생리통·기미 저는 25세의 회사원입니다. 항상 생리 때가 되면 체로 고생해왔습니다. 그래서 양약이며 한약도 여러 번 지어먹어 보았지만 별다른 효과를 얻지 못하던 터에 한방과 건강이라는 책을 통하여 향비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 중 향요법을 자세히 읽어보니 매번 약을 먹는 것보다 인체에 전혀 부작용이 없는 향비팩을 배꼽(신원혈)에 차는 것만으로 좋아진다고 하기에 반신반의하며 착용하였습니다. 그리고 일주일만 지난 후 생리를 하게되었는데 정말 놀라게도 모든 증상이 말끔히 없어졌습니다. 그리고 한달 여일이 지난 후에는 눈주위의 기미 때문에 남몰래 고민해 왔었는데 그런 기미마저도 서서히 없어지는 것을 느끼며 나 자신도 몰라볼 정도로 피부와 혈색까지 좋아졌음을 확실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향비를 누구보다도 사랑하게 되었고 그 동안 이런 제품이 왜 더 빨리 나오지 않았었나 하는 아쉬움까지 남겨질 정도로 향비에 대한 고마움을 느끼며 모든 스트레스에서 벗어날 수 있게되어 제품을 만드신 분들에게 정말 감사드립니다. (서초구 김미선)

지금 바로 전화 주십시오

CUMIN·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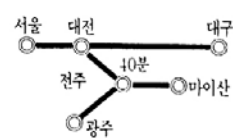
매달리는 증상에 () 마십시오

-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 2 두통이 있거나 민첩이 없다
-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 5 기미가 있다
-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지 않다
-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 10 생리때 발열이 있고 탁하다
- 11 배나 목부 근처에 살이 썩 편이다
-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 13 가슴이 답답하고 열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뜨고 붉은 살이 있다
-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 16 목이 바르거나 눈이 침침하다
-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 18 달이나 감성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신비의 마이산 탐사 탐영제 방생



관광과 방생을 한국에서! 기묘한 산이 있어 좋고, 불가사의한 답이 있어 신비스러운 곳, 이태조가 백일기도를 드린 영험있는 기도도량. 섬진강 맑은 물의 탐영제 방생기도



진인 마이산 탐사 (063) 433-2900, 0303 432-0652, 0072